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현명함을 몰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5월 18일)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직원 간 고소·고발 하며 갈등 격화로 정상화 난항

[기획] 표류하는 나눔의집
상 본질 벗어난 감정대립
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을 둘러싼 운영 논란이 내부갈등으로 번지며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나눔의집 사태의 시발점이 된 내부제보 직원들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기존 직원들, 법인 이사회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고용한 운영진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조직이 양분화되고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난 운영부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오히려 내부제보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감정대립만 격화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태의 본질인 운영 미비에 대한 개선은 커녕, 내부 갈등으로 인한 또다른 시한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나눔의집을 둘러싼 여러 논란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법인의 운영부실이다. 광주시청 감사 및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 등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횡령 등 심각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후원금, 회계 관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운영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측은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6월 2일 이사회를 통해 정관과 운영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이어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비롯해, 내부제보 직원들의 고발에 따른 이사 스님 4명에 대한 수사협조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나눔의 집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시각이 많다.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내부제보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 인계 거부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되레 전보다 더 비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회계 및 CCTV 열람 권한 등이 대표적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나눔의집 시설 회계는 시설장 결제 없이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확보한 내부제보 직원 일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법령상 시설장 권한으로 규정된 시설 내 CCTV에도 시설장 모르게 도어락이 설정되는 등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양분화된 직원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고소·고발사태가 잇따르는 등 사태 수습보다는 감정대립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까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사태의 본질인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되레 또다른 논란만 낳으며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안신권 전소장의 후임으로 새로 고용된 우용호 소장은 광주시청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었던 시설과 법인간 회계·인력·공간 분리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부 제보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역사관 학예사와 법인 직원 등 생활시설 관계자가 아닌 이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사회복지 시스템 접속체계를 직무별로 전환한 것에 대해, 내부제보 직원들이 '보복성 업무배제 조치'라고 주장한 것이다. 직원 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내부제보 직원과 다른 직원들 간 마찰을 빚으면서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 내 카메라와 녹음기로 서로를 감시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법인과 시설 회계 분리를 위해 새로 고용된 법인 회계과장은 입사 이후 2달간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제보 직원 중 한명인 기존 회계 담당자 A씨가 이에 대한 권한을 인계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법인 관계자는 "A씨가 통장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제반물품을 인계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회계 관련 법인에 대한 보고의 무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내부제보 직원들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이유로 다른 직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직원 제보로 촉발된 논란에
운영부실 등 문제점 드러나
법인, 개선 작업 착수했지만
내부갈등에 막혀 사태 악화
사태 확대·장기화 우려 제기

이런 까닭에 사회복지계 관계자들은 나눔의집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나눔의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정명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신뢰를 쌓는 것"이라며 "내부제보자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그들의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불교복지계 전문가는 "사회적 이슈인 만큼 관할 지자체나 수사기관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논란거리가 양산된다면 호미로 막을 일, 쟁기로도 못 막을 만큼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갈등구도로는 나눔의집 운영이 정상화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6월 28일 해수관음보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사부대중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해수관음보살상을 제막하고 있는 모습.

부산 영도에 해수관음보살상 '우뚝'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6월 28일 해수관음상 봉안법회

높이 4.8m, 중량 10.5t
석재는 영주석 사용돼
뒤편엔 대행 선사 법어

태평양 관문인 부산 영도에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를 살피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해수관음보살상이 우뚝 세워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6월 28일 해수관음보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안된 해수관음보살상은 높이 4.8m, 중량 10.5톤으로 석재는 영주석이 사용됐다. 좌대 높이는 2.5m로, 연화좌대와 중대석에는 네마리 용과 구름의 운용문이 부조됐다. 또한 상대갑석에는 공생·공심·공용·공체·공식의 대행 선사 가르침을 새겨 넣었다. 해수관음보살상 뒤편에는 대행 선사의 법어가 병풍석 형식으로 조성됐다. 높이 2.9m, 길이 22.8m인 법어 병풍석에는 문수 및 보현보살상과 금강역사상, 대행선사 법어 10폭이 새겨져 있다.

법회에는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해 전국지원장 스님들과 박해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장 및 본원, 지원 신도회장, 임원진 등 1천여 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이날 법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으며, 현장에 참석한 대중들은 모두 코로나 예방 수칙에 동참하고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해수관음보살상이 지닌 자비행을 신도들이 앞으로 적극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해수관음보살상 불사는 부산지원 불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수관음보살이 도량을 수호하고 자비의 에너지로 인연이 된 모든 생명을 굽어 살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부산지원 게시판에 쓴 '해수관음보살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빙긋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문구처럼 해수관음보살님의 마음과 미소를 내면에 지닐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큰 스님 말씀을 받들고 불사하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다. 주저앉고 싶거나 물러나고 싶을 때마다 큰 스님 가르침과 신도님들의 믿음과 정진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이처럼 불사가 마음공부를 점검하는 내면 불사와 둘이 아니니 앞으로 도량을 찾는 이 누구라도 삶의 고를 녹여나가고 세세생생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도량을 가꾸고 정진의 에너지를 채워나갈 수 있길 발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부산지원 재가 불자들은 발원문과 봉행사를 통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마음의 도리를 알고 더욱 정진하는 불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박해일 부산지원 신도회장은 "해수관음보살님과 둘이 아닌 한마음이 되는 길을 일러 주신 대행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비심으로 우리 모두 마음의 차원을 높여 자유인이 되도록 열심히 수행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동진 여신도회장도 발원문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해수관음보살님의 감로수를 양식 삼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일체 근본서 나고 듦의 진리를 알아 한마음으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외에도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신도들을 대신해 해수관음보살상 제작을 맡은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 윤재현 보광석재 상무, 윤태욱 TM개발 대표에게 감사패를 각각 증정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해수관음보살상은 2008년 법당 왼편 언덕 위에 해수관음보살을 모셔도 좋다는 대행선사의 유지에 따라 시작됐다. 2013년 1월 보광석재에 설계를 의뢰, 2016년 8월 영도구청으로부터 종교 시설 증축 부지조성 개발 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2016년 12월 기초공사와 해수관음보살상 조성 위치를 확정키 위해 참배단 주변 바닥 토사를 파내던 중, 모래지반 속에 반구 모양의 큰 바위가 발견돼, 별도의 토목공사 없이 그 위에 해수관음보살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후 2018년 1월 해수관음보살상 뒤편에 대행선사 법어 10폭을 새겨 넣은 '법어병풍석' 불사도 함께 진행했으며, 2020년 6월 완료 후 28일 준공 봉안 법회를 갖게 되었다. 부산=노덕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